

#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반대결의안

의안 번호	709
----------	-----

발의년월일 : 1998. 11. 9.

발 의 자 : 노영호 의원  
외 11 인

## 1. 제 안 이 유

-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고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인구 50만 이상시에 대하여 도세징수액의 50%상당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 오던 것을
- 도세징수액의 3%를 징수처리비로 교부하고, 잔여재원 중 90%는 인구 비례에 따라 시·군에 배분하고, 10%는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도조례로 운영토록하는 내용의 관계법령을 개정추진하고 있는바,
-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자립기반 조성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98년을 기준으로 428억원의 징수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으나 도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면 389억원으로 39억원이 감소되는데다 IMF 경제 한파로 인한 세수 결함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재정 악화를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며,

- 특히 안산시는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종합운동장건립,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추진등 대형사업 추진과 중소기업육성 및 실직자구제등 당면추진 사업과 관련한 예산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 정부의 공감할만한 보완 대책없이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개선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향후 안산시의 세입 감소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각종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됨.
- 따라서 안산시의회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계획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며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 2. 주 요 골 자

- 안산시는 신도시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라 향후 도세징수교부금이 상당부분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가 개선 시행될 경우 징수교부금이 크게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며
- IMF 한파로 인하여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종합운동장 건립, 중소기업육성 지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등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 대책등의 노력없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지방재정자립에 역행되며,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 불합리한 처사로서

-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개선될 경우 재정압박이 가중되어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며 자원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6만 안산시민과 함께 정부의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 첨부 : 결의문 1부.

# 우 리 의 결 의

##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 반대 결의문)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6만 안산시민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지방재원의 공정배분을 구실로 논의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은 우리시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케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재정 통제행위로서 이를 절대 반대한다.
2. 중앙정부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과감한 세원 이양등의 노력 없이 지방재원 관련법개정만으로 도세징수교부금제도를 개선 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치 않는 불합리한 처사인바,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3.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6만 안산시민과 함께 도세징수 교부금제도개선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8. 11. 11.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